

“위고 요리스처럼, 든든한 수문장 되고싶다”

(EPL 토트넘 홋스퍼 골키퍼)

189cm 큰 키와 빠른 순발력 강점
U리그·연세대 정기전서 필승 의지
“하루빨리 프로무대에 서고 싶어요”

국내 대학축구계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골키퍼가 등장했다. 바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몸을 던지는 고려대학교 민성준이다. 민성준은 2018 수원 JS컵(U-19) 모로코전에서 신들린 슈퍼세이버로 MOM(Man Of the Match)을 차지하고, 2018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 서울 이랜드FC와의 승부차기에서 두 차례 선방으로 프로팀을 제압해 화제가 됐던 주인공이다.

“빠른 순발력을 이용한 방어에는 자신 있습니다”. 민성준은 뛰어난 반사신경과 큰 키(189cm)로 승부차기 선방에 강점을

보인다. 2019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승부차기 선방으로 고려대를 4강까지 이끌었다. 민성준은 “팀 훈련 때 코치님께 받은 훈련과 개인적으로 한 줄넘기, 웨이트 트레이닝이 도움이 됐다”며 선방비결을 귀띔했다. 고려대 서동원 감독도 “가까운 거리의 슈팅도 선방할 수 있는 반사신경이 천부적으로 뛰어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호진이는 능력 자체도 좋고 친분이 두터워서 좋은 호흡을 자랑한다”. 민성준은 최근 U-20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절친 정호진(MF)과 함께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부름을 받았다. 2018 AFC U-19 챔피언십 예선에서도 든든히 골문을 지켰지만, 최근 U-20 월드컵 대표팀에는 프로 소속 골키퍼들만 발탁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그럼에도 5월 태백국제축구대회에 차



고려대학교 축구부 골키퍼 민성준(체육교육과 18학번) 사진제공 | 청춘스포츠

출되어 승부차기 선방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곳곳이 자신의 역량을 드러냈다.

민성준에게는 끝을 향해가는 U리그와

연세대와의 정기전이 남았다. 그는 “최후방에서 동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정기전에서 연세대에 1-2로 패한 아쉬운 기억이 있는 민성준은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까지 보완해 다 막아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신의 롤모델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위고 요리스를 뽑은 민성준은 “체력조건도 비슷해서 요리스를 본받는다면 골키퍼로서 큰 발전이 있을 것 같다. 하루빨리 프로무대에 도전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밝혔다. 고려대 2년 선배인 송범근이 2학년 을 마치고 전북현대 에 입단한 것처럼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고 싶다는 당찬 포부였다.

김대형 명예기자(고려대 지리교육과) nadakth1@naver.com

센터백 패스성공률 보면 ‘EPL 강팀’ 보인다

맨시티 존 스톤스 94.2%로 1위
빅4 구단 센터백 87% 이상 기록

현대축구에서는 센터백에게 수비는 물론 패스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다. 수비수가 빌드업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대부분의 팀은 강한 전방압박을 가한다.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센터백은 이러한 강한 압박 속에서도 안정적인 패스를 구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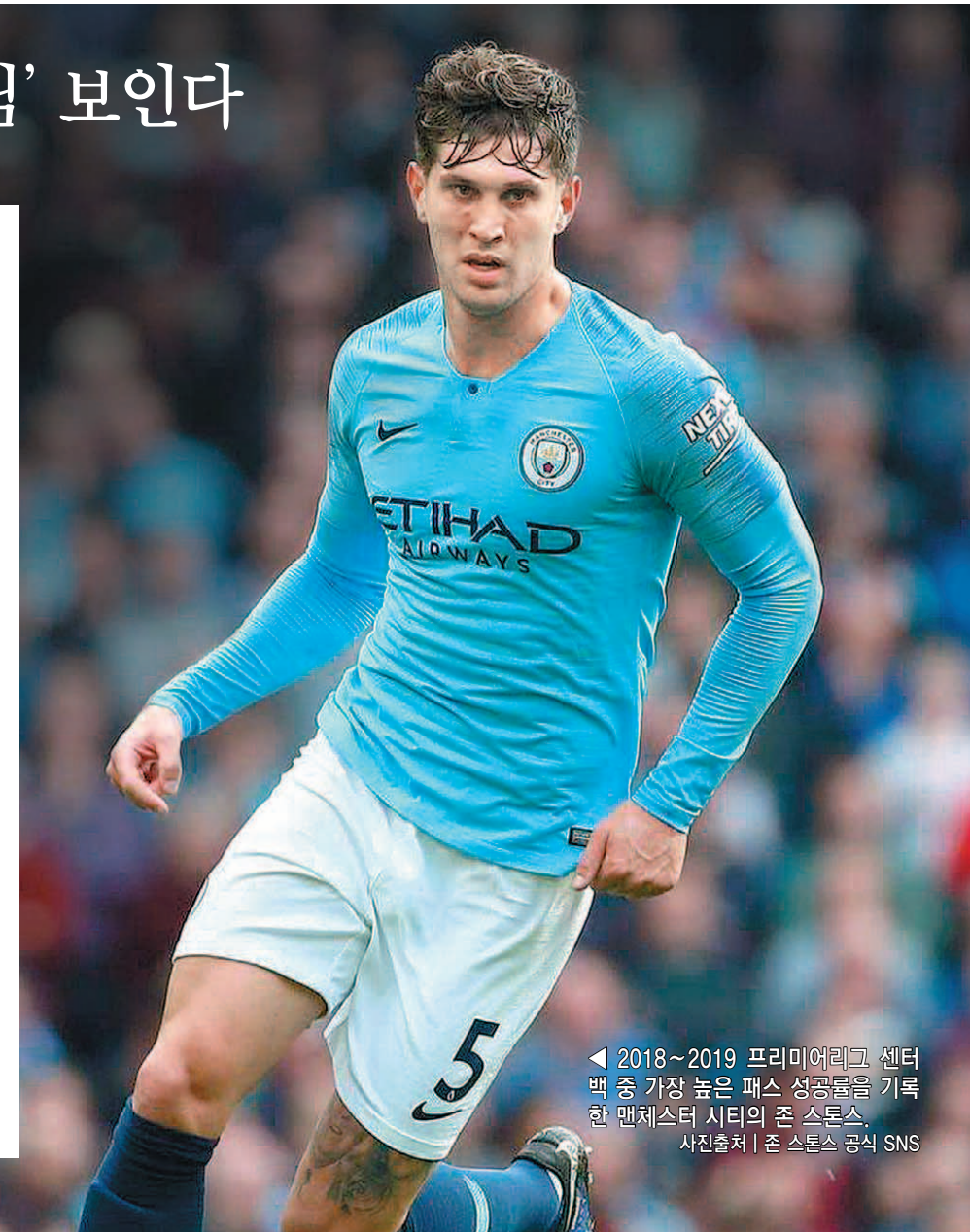
이를 증명하는 지표는 센터백의 패스성공률이다. 리그 우승을 차지한 맨체스터 시티는 센터백의 공격전개가 활발한 전술을 사용한다. 아이메릭 라포르테는 올 시즌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92.3%의 패스성공률을 기록했다. 그의 파트너 존 스톤스는 24경기에 나와 94.2%를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 클럽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리버풀의 버질 반 다이크는 89.7%,

조엘 마티프는 86.9%를 기록했다. 리버풀이 주로 긴 패스를 통한 역습을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첼시의 안토니오 루디거는 91.5%, 다비드 루이즈는 88%를 기록했다. 토트넘의 토비 알더베르틀트는 88.5%, 안 베르통은 87.5%의 성공률을 보였다. 올 시즌 빅4 구단 소속 센터백들은 대부분 87~94% 사이의 높은 패스성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빅6 아래 클럽들의 기록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7~10위의 4팀 중 패스성공률 85% 이상을 기록한 센터백은 단 두 명뿐이다. 9위 레스터시티의 해리 맥과이어(85.6%)와 10위 웨스트햄의 이사 디오프(86%)이다. 두 선수의 능력은 리그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강팀에서도 두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센터백의 패스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서서빈 명예기자(연세대 사회학과) smallbeen@naver.com



▶ 2018~2019 프리미어리그 센터백 중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맨체스터 시티의 존 스톤스 사진출처 | 존 스톤스 공식 SNS

연세대 농구부 이정현의 다짐

“기복 줄이고 MVP 한 번 더”



이정현

13일 서울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연세대와 단국대의 2019 KUSF 대학농구 U-리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열렸다. 이날 연세대는 단국대를 85-67로 대파하며 고려대와 함께 공동 1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연세대의 에이스는 단연 이정현(체육교육)이었다. 전반기에 스틸 리그 전체 1위(30개), 팀 내 최다 득점(184득점)을 기록했다. 이정현은 지난해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결정전 MVP와 더불어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올해는 다소 기복을 보여 걱정을 샀다. 기복이 있었음에도 경기당 평균 15득점을 기록하며 본인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5월에 열린 이상백배 대학농구대회에서는 한국-일본 선수 통틀어 유일하게 20득점 이상을 올리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수비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이정현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단국대와의 경기에서 리그 득점 1위인 윤원상을 꺾고 우승했다. 이정현은 “감독님께서 (윤)원상이 형을 막으라고 주문하셔서 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센터들이 같이 도와줘서 잘 막은 것 같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8월에 열릴 MBC대 전국대학농구대회 전까지 달콤한 휴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정현은 “체력과 기술적 부분을 잘 다듬어서 후반기에는 기록을 줄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며 각오를 드러냈다. 지난해 슈퍼루키로 눈도장을 찍은 이정현이 다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신민주 명예기자(부산외대 영상콘텐츠융합학과) dlswn943@naver.com

생활속 치유황토방
자연친화 건강한 삶

국내최초 이동식 구들 황토방

www.ondol.net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노화예방, 피부미용
종일 뜨끈뜨끈, 여름철은 시원하게

저렴한 연료비, 적은량의 친환경 나무장작, 톱밥, 펠렛
연료만으로 난방비 해결



황토, 숯, 천연
해초 석, 맥반석
등으로 바닥과
벽, 친환경
치유형 건강시설
이동식으로
윤반, 설치 간편,
썩뜸, 솔잎담,
한증 등
최적공간

정원, 자투리 공간, 사찰, 암자, 농막, 전원주택, 힐링타운, 펜션, 캠핑장,
요양원, 경로당 등등.. 무주명품 농원들에서 황토온돌방 숙박사업 성공적으로 운영중

개운하게 폭자고, 원적외선 팡팡!! 체온상승효과 지치고 짜든 몸 가뿐하고 가볍게!!

30년 구들장인, 수천건 구들 시공, 한국기네스북 국내최대 구들방 공인인증
중국, 일본, 국내특허 13개 등록, 복잡하고 어려운 전통구들방식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시공방식 개발

(주)안병연 구들명가 상담문의 055-973-4689

전국지역별 대리점 모집중
(판매, 시공일체)

다양한 구들시공 일체상담

전주 055-754-0027 합천 010-5555-2560 원주 010-8477-2023
완주 010-3653-1916 무주 010-5127-7599 문경, 고성(준비중)

고등학교에도 납품(조달청 통해)
합천 적중 설치, 고성 웰링, 고성 이당, 산청 삼장 설치 예정!
울산, 포항, 영천 대리점 협의중!